



가장 약한 사람을 돌보아요!

“나는 착한 목자다.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.”
(요한 10, 1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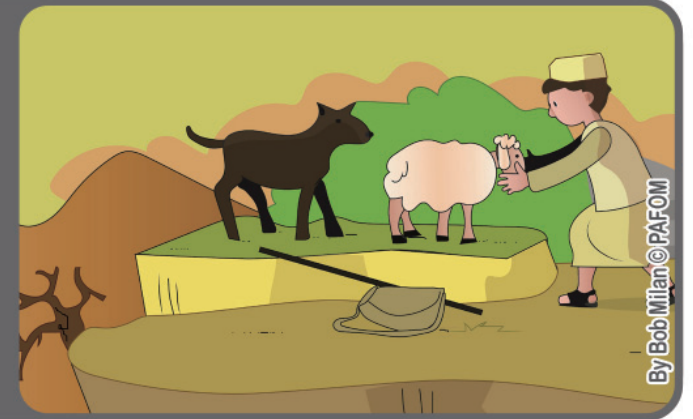
포콜라레
천주교마리아사업회



예수님께서 양들을 알아보시고 보살피시는 “선한 목자”와 같아요.



예수님께서 양 우리로 돌아왔을 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시고 그 양을 찾기 위해 달려 나가세요.



예수님께서 피곤했지만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걸으셨고 마침내 찾으셨어요.



캐나다의 봄이 이야기해 주어요.

어느 날 집에서 레고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



여동생은 엄마에게 가고 싶어 했어요. 엄마는 2 층에 계셔서 동생이 우는소리를 듣지 못하셨어요.



나는 동생을 달래며 손을 잡고 동생이 엄마에게 갈 수 있도록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.